

열반,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궁극점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극강대 총장 편역)

11. 인간의 이상적상태 ④

불법의 궁극적 목표

부처님의 근본설법인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은 결국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불교인은 이같이 생각하며 이같이 행함으로써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 혹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대답도, 역시 근본설법에 설명되어 있다.

“이것은 안(眼)을 생기게 하며, 지(智)를 생기게 하며, 적정(寂靜), 증지(證智), 등각(等覺), 열반(涅槃)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행한다. 그것을 석존은 중도(中道)라고 하였다. 이 길을 따름으로써 사람은 능히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거기에 붓다 가르침의 궁극(究極)의 목표가 표현되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되고 싶은 이상(理想)의 상태를 자기 마음속에 그리면서 품고 있다. 금전을 저축하여 노후(老後)의 풍성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도 많으리라. 권세(權勢)를 누리며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리라. 많은 지식이 있는 학자로서 존경받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으리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신(神)의 가르침을 지키며 내세(來世)에는 천국에 가서 태어나기를 염원(念願)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며 생각하는 이상의 상태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붓다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붓다에 의해서 그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궁극이상(究極理想)의 상태는 ‘열반(涅槃)’이라고 불리는 그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붓다는 열반을 궁극적 이상의 상태라고 하며, 또 불교인은 이 스승을 따라서 열반에 이르기를 염원하는가. 그것은 벌써 단순한 이론의 문제가 아니며 의지(意志)의 문제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어떤 철학자는 모든 철학의 체계는 이것을 추구하면서 들어가 보면 그 최후의 바닥에는 언제나 의지(意志)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와 같은 주장은 모든 종교의 체계에 관해서도 해당될 수 있다. 어떤 이유,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인격을 다하여 소원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유무(有無)를 막론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의지(意志)라고 말한다면 모든 철학의 체계도 종교의 이상(理想)도 이 의지를 뽐내고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들은 또한 무엇 때문에 열반을 구하며 무엇을 위해서 열반을 소원하는가, 라고



열반은 탐진치가 괴멸된 궁극의 상태로서 불교의 종착역이다. 사진은 영천 만물사에 조성된 부처님 열반상.

묻는다면, 그것은 질문으로서 너무 과도(過度)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묻는데 있어서 제한(際限)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열반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열반’이라고 부르는 인간의 궁극적 상태는 어떠한 경지(境地)일까. 그러한 경지라 하면 또한 소망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한 경지를 소망하는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안다. 그리고 이러한 궁극의 소망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하는데 있어서 결국 불교인이 되느냐 혹은 되지 않느냐는 구별이 있는 것이지만 여하간 먼저 ‘열반’이란 어떠한 이상(理想)의 상태인가를 알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본다.

“사알리푸트라(사리불)여, 열반, 열반이라고 말하지만, 무엇이 열반일까요?”

붓다의 뛰어난 제자 사알리푸트라는, 어느 때 잠부가타가(염부차, 閻浮車)라는 외도(外道)의 수행자(修行者)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은 일이 있었다. 또 어느 때는 사만다가라는 같은 외도(外道)의 수행자로부터도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모두 “벗이여, 대개 탐욕(貪慾)의 괴멸(壞滅), 진에(眞)의 괴멸(壞滅), 우치(愚痴)의 괴멸(壞滅), 이것을 말하여 열반(涅槃)이라고 말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 문답은 더 계속되며 그러면 그러한 상태를 실천하는 길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알리푸트라는 “벗이여, 이 성스러운 여덟 갈래의 길(아시달라)이 열반을 실천하는 길이니라”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답은 매우 명쾌한 느낌을 준다.

여기에 우리들은 열반이란 번뇌(煩惱) 즉 욕망의 좋지 못한 생각과 행위가 마음속

지럽게 하며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없는 상태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길은 저 성스러운 여덟 갈래의 길(八正道)으로써 뿌리를 삼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열반이란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의 음사(音寫)이며, 그 말의 원래의 뜻은 ‘불이 꺼진’ 상태를 말한다. 붓다는 자주 불 또는 불꽃으로서 번뇌를 비유하였다. 욕망의 과도(過度)한 작용을 불꽃이 몸과 마음을 불사르는 것에 비유하였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붓다가 추구한 자유스러우며 평안한 인간의 이상적 상태는 그러한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였다.

이 말을 처음 만든 것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붓다도 또한 이 말로써 이 길에 있어서의 인간의 궁극적 이상의 상태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또 자주 이 비유로써 그 상태를 설명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파차구다화유경(婆蹉衛多火喻經)>이라는 경전이다.

여기에서도 또 부처님은 ‘뱀짜(파차)라는 외도(外道) 행자(行者)의 방문(訪問)을 받으면서 문답을 전개한다. 외도의 행자는 먼저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문제에 관해서 붓다에게 묻는다. 붓다는 그러한 문제를 해탈과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물리친다.

“세존이여, 그러면 해탈한 자는 어디로 가서 태어나는 것일까요?”

“뱀짜여, 가서 태어난다는 것은 적당한 표현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도 가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가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적당하지 않다.”

해탈하여 열반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붓다가 그러한 이상의 상태인데도 이 외도의 행자는 여전히 죽어서 제천(諸天, 천=deva=신)이 있는 곳에 상생(上生)한다는

낮은 이상의 테두리 안에 머물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문답이 진행됨에 따라 그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뱀짜여, 그대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이 교법은 심히 깊고 알기 어려우며, 미묘하여, 지자(智者)만이 알 수 있느니라. 다른 견(見)에 따르면, 다른 행(行)을 수행 하는 자는 도저히 알기 어려우리라. 그러나 나는 지금 다시 또 그대를 위해서 설명하겠노라. 뱀짜여, 만일 여기에 불이 타고 있다면, 그대는, 불이 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물론입니다.”

“그러면 그 불은 무엇에 의해서 타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대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뿔나무가 있기 때문에 탄다라고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불이 꺼졌을 때 그 불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대는 무엇이 대답하겠는가?”

“세존이여, 그 불은 적당한 것이 없습니다. 그 불은 뿔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탄 것이며 뿔나무가 다하였기 때문에 불은 꺼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붓다가 설명하며 가르친 것은 명백해진다. 사람들에게 괴로운 불안의 생활이 있는 것은 번뇌 즉 욕망의 악한 생각과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악한 것이 없어졌을 때 사람들의 불안하며 괴로운 생활은 없어진다. 그러나 이 변화는, 가서 생겨난다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변화가 없었다는 뜻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며 가르쳤을 때 그 외도의 행자는 활연(豁然)히 깨달으며 평생을 재가(在家)의 신자(信者)로서 붓다를 따르게 되었다고 한다. 거기에는 이 길에 의해서 갖게 된 인간의 이상적 상태가 어떻게 하여 얻어지며 또 어떠한 것인가를 매우 구상적(具象的)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佛法이 천년 뒤에 전해진 까닭 ⑤

영평 십오 년 사월 오일에 저신신 등이 표를 상덕전(象德殿)에 받드니, 황제께서 말씀하셨다.

멀리 북과 이익을 구함이 금일에 존사(尊師)께서 사(師)사(師)라 부를 줄은 생각지 못했노라. 짐이 불·도(佛·道)이 교(敎)로써 한 처소에 모여 그 우열을 관찰하리니 사등은 각각 훌륭한 술법으로 그 승부를 결정하라. 이에 관찰할 유사(有司)에게 성지(聖旨)를 내리노니 백마사(白馬寺)에 제연을 포설(鋪設)하라. 짐이 직접 임(臨)해 보고 두 교를 시험하고 비교하라.

유사가 칙명을 받들어 백마사 앞을 정결하게 닦고 세소(洗掃)하여 도량을 배열해 세우고 삼(壇)을 나누어 시설하였다.

황제께서는 공봉관(供奉官)에게 명령하여 도·불(道·佛) 이교(敎)를 취하여 중단(中壇)에 모우고 향나무의 모든 싹을 그 위에 싹고 불을 놓아 태우게 하였다.

잠깐 사이에 도·유(道·儒) 이교(敎) 다 타버리고, 삼부(三部)의 불경(佛

좌(佛座)가 되어 부처님께 중생을 위해 설법하시기를 청하니 부처님께서 자리에 올라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인간·천상 백만이 다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오직 가슴만이 파안미소(破顏微笑)하므로 세존(世尊)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정법인장·열반묘심·실상무상이 있는데 마하가섭에게 부촉하노라.”

이로부터 서로 번갈아 전수(傳受)하여 이십 팔대(二十八代) 달마대사(達磨大師)에게 이르러 반야다라(般若多羅)의 유촉(遺囑)을 받고 동쪽으로 이 땅에 와서 문자를 세우지 않고(不立文字) 사람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루게 하였다(見性成佛).

28의 숫자는 하늘의 경(經)이다. 경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십 팔대 이전에는 그 법이 이르지 않았다. 경이 갖추어진 이후에 위(緯)가 나는 것이니, 위는 서로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달마에 이르러 동쪽으로 와 초조(初祖)가 되었으며, 장사지낸 뒤 삼년에 한쪽 신을 이끌고 다시 서토(西土)로 돌아갔는데, 바로 북덕보궁(福德牢固)의 시기에 해당하며, 달마이후에 부처님의 의발(衣鉢)을 전한 자가 오대(五代)에 그치니, 이는

황제가 칙명으로 10개 대가람을 조성하니 백성이 전념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행했다

綱은 완연히 갖추어 있으며 열두 길의 광명을 놓았는데, 도사 등은 전전궁궁(戰戰兢兢)하고, 모여서 구경하는 대중은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였다.

이때에 등·난 두 스님이 곧 단상에 올라가 불경을 받들어 황제께 헌납하니, 황제께서 통사사인(通事舍人)인 송상(宋庠)에게 명령하여 저신신 등에게 물어 말하게 하였다.

“도사 등은 표(表)를 진상하고 불교로 더불어 승부를 다투었으나 금일 도전(道典)은 다 분소(焚燒)를 당했으니 다시 할 말이 있는가.”

황제가 칙명으로 열 개의 대가람(大伽藍)을 낙양성 안에 조성하고 일곱 가람은 비구 스님을 두고, 세 가람은 비구니를 두었으며, 금구(金口)의 진전을 집마다 전법(轉念)하고, 여래의 성교(聖敎)를 낱알이 따라 행하였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부처님 법이 흥기함을 반드시 명수(冥數)를 의지하는 것이며 무연이 아니다.

대체로 또 선법(禪法)이라는 것은 교(敎) 밖에 따로 행하는 최상의 종지(宗旨)이다. 부처님이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대법천왕(大梵天王)이 금색(金色)의 파라와(波羅花)를 드리고 몸으로 상

오성(五星)으로 땅의 위(地緯)가 된다.

또 북덕보궁의 시대에는 세상의 무리가 북을 지음을 일산(一山) 경성성불(性成佛)의 첨경(捷徑)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다문(多聞)으로써 미친 지혜에 치빙(馳騁-부산히 돌아다님)하며, 북을 닦음으로써 인천(人天)의 상(相)에 주착(住着)하는데, 또한 부처를 배우는 커다란 흠집인 것이다.

그러므로 달마가 서쪽에서 오시어 날 날이 살펴보고서 마음을 쓰게 하시니, 이것이 그 선법(禪法)이 되는 까닭일 것이다.

달마가 바로 갈대를 꺾어 타고 양자강(楊子江)을 건넜는데, 말후(末後)에 만일 신광(神光)의 과량(過量)한 기를 갖는 자가 없었으면 조사(祖師)의 심인(心印)을 누가 전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불조(佛祖)의 들어 잡은 처소가 평도 있고 나이잡도 있으며, 한 번 누르고 한번 드날림이 중생을 위하여 불지(佛智)를 성취시키는 방편(方便) 아님이 없는 것이다.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僧家秘傳風水學講義

옛 승가의 비전 풍수학 강의 개설
스님들을 위한 공간 확보

천문과 지리를 알면 운명이 바뀐다.
재가 불자를 위한 방편지학

- 개설시기 : 2015년 3월, 둘째 목요일
- 시간 : 매주 목, 금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장소 : 서울시 강남역 교보문고 뒤 정통풍수지리학회
- 교재 : 유 리 자 (유리자동서) 옥 룡 자 (무감편) 무학대사 (동사심전) 등 양택과 음택 중점 강의

- 관심있는 스님들께는 추가 혜택있음.
- 처사님들 강의는 따로 합니다.
- 지방 강의 개설 문의 받습니다.

전화 010-5559-1529

예봉 합장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폭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유 ≈ 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야 쾌면, 숙면, 꿀잠
-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 ◆뒤척임 질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 ◆폭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위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 베개 높이 인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배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빠근 바른 빠른 치유
-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장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심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범왕정사.net
010.3487.0035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명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니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르면 율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신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교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어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교원 대학교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